

그대와 함께 걷는 길... 세상을 잇다

가을 '제주'

햇볕이 서운한 계절. 제주 들녘은 육지보다 늦게 찾아온 가을이 뽀뽀한 냄새에 한껏 취했다. 가을 제주를 말하자면 역새를 빼놓기 어렵다. 역새가 찬바람에 춤을 추는 한라산 중턱의 어리목과 산굼부리, 갖가지 오름은 사람 키만큼의 역새가 '은빛 파도'를 연출한다. 멀리 한라산을 배경으로 광활한 들녘이 온통 역새밭이다. 역새밭을 벗어나면 저물어가는 가을숲의 향기도 맡아야 한다. 콩나물시루만큼 뽀뽀하게 나무가 심어진 사려니숲길은 소나무와 단풍나무, 때죽나무가 모인 천연림과 삼나무·편백나무로 조성된 인공림이 한데 어울려 가을 낭만이 물씬 풍긴다.

해가 뉘엿뉘엿 산을 넘는 오후 5시쯤이면 산굼부리는 역광을 받아 그야말로 '황금빛 가을'이다. 해발 400m 들녘을 넘실대는 역새의 춤사위에 관광객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산굼부리는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데, 1118번, 1112번 지방도로의 교차점으로, 동서 850m, 남북 730m의 평범한 오름이다. 가운데 지름 600m의 분화구가 있고 이 분화구를 둘러싼 들녘이 온통 역새천지다. 사유지라 입장료 6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흠.

제주시와 중문관광단지를 잇는 도로들은 시내만 벗어나면 하나같이 역새로 물들어있다. 아담한 오름들도 역새 천국. 오름 중에선 제주시 동쪽에 있는 구좌읍 손지 오름과 아끈다랑쉬오름도 역새군락이 꽤 볼만하다. 제주시 서쪽 애월읍 이시돌목장과 모슬포 삼방산 인근도 운전을 하며 쉽게 역새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다. 남쪽에선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따라비오름이 굳게 닫혀 있다. 오름 등성이로 촘촘히 심어진 역새가 해 기울기에 따라 다른 빛을 발한다. 제주도박이들은 따라비오름을 최고로 친다.

역새 춤사위를 즐겼다면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가을 숲길도 추천한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나리 사려니오름에서 들쭉오름을 거쳐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비자림로

까지 이어지는 15km의 사려니 숲길은, 주변에 오름과 나무숲이 어울려 육지에서 만나기 힘든 장대한 생태계가 길 주변으로 펼쳐진다. 사려니는 '살안이' 혹은 '술안이'에서 나온 말. 제주말로 '살'이나 '술'은 신성한 곳을 뜻해 신성한 숲으로 받아들여지면 된다.

해발 500m의 입구 주변부터 30m에 이를듯한 삼나무가 높게 솟아있는데, 붉은 흙을 양탄자처럼 밟고 숲으로 들어가면 삼나무숲이 소나무와 단풍나무로 이뤄진 숲으로 변했다가 어느새 다시 삼나무숲이 나온다. 자연림은 온대산림이라 졸참나무와 서어나무, 산딸나무, 때죽나무 등 갖가지 나무가 한데 어울린 자연의 보고다. 숲길은 평탄하고 오르막이 거의 없어 가족이나 연인의 나들이 코스로 안성맞춤. 숨을 쉴 때마다 공기의 청정함이 느껴져 걷고나면 건강해지는 기분마저 든다. 낙엽이 밟구는 가을 숲길은 반듯하지만, 길가에는 로빈 훗이 살았던 서우드숲을 연상케 하는 깊은 숲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간다. 운이 좋다면 코 앞에서 노루나 사슴을 마주할 수 있는데, 이들은 사람을 보고도 놀라거나 피하지 않는다. 입장료는 무료.

/제주=글·사진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광활한 역새 춤추는 '산굼부리'

노루·사슴 만나는 '사려니 숲길'

숨쉴때마다 가슴 가득 청정자연

가족·친구·연인 누구와도 좋아라

■ 제주 유람도 식후경

제철 맛은 방어·감귤, 값싸고 맛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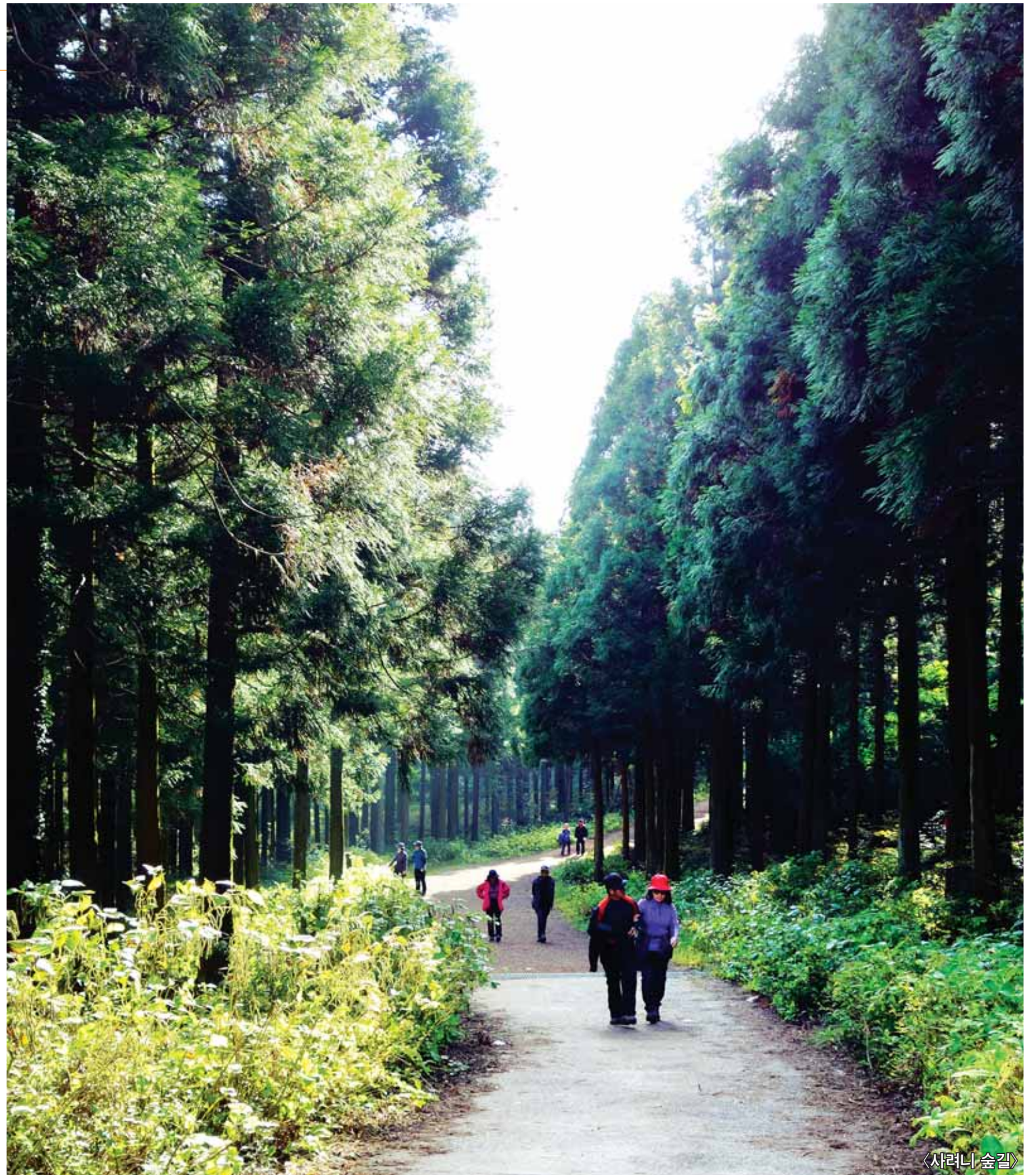
<대방어회>



<감귤>

단풍 질 무렵 제주 먹거리로는 겨울이 돼서야 살이 통통해지는 방어가 최고다. 특히 길이 80cm, 무게 10kg이 넘는 대방어는 횃집에서 두툼하게 썰어주는데, 기름기가 잔뜩 올라 고소함이 그만이다. 주문하면 참치처럼 여러 부위가 나온다. 붉은 등살은 기름장에, 하얀 살은 붉은 쌈장에 찍어먹는다. 방어회로 유명한 식당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마라도횃집'. 회를 발라내고 남은 뼈를 통째로 구워주는 '뼈구이'도 가시 사이의 살을 끊어내는 맛이 훌륭하다. 대방어 한 접시 3만원, 뼈구이 1만원.

이 즈음 제주에선 가장 흔한 것이 감귤이다. 서귀포시 남원읍 주변은 굴나무가 가로수를 대신한다. 웬만한 펜션은 손님들에게 귤을 무료로 서비스 할 정도. 농산물 판매점도 육지보다 20% 이상 싼값에 판다. 감귤나무는 육지에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 이채롭다. 올레길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길 주변으로 카페가 생기는 것도 요즘 제주 여행. 영화감독 장선우씨도 서귀포시 대평포구(8코스)에 '물고기카페'를 운영중이다. 조그만 한옥집을 개조, 아늑한 분위기로 젊은층을 유혹한다. /제주=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사려니 숲길>



<산굼부리 역새밭>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역 | 광충간도로 | 서우리병원 | 한일파미프 |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